



SIGNAL CORPS
U.S. ARMY

230147



“지옥에서 살아남아 역사를 증언하다” 박영심

1921년 12월 15일 평안남도 남포시 출생.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14살에, 남포시 후포동 양복점에서 식모살이를 함

1938년 3월경, 처녀공출로 친구와 함께 평양으로 압송. 이미 평양역에 15여명의 여성들이 끌여와 있었음. 여성들과 함께 중국 남경, 긴스루이 위안소에서 우다마루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위안부생활

1941년 경, 상해, 싱가포르, 미얀마 랑군을 거쳐 라시오지역의 이카쿠루 위안소에서 와카하루 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위안부 생활

1943년 여름,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 송산(라모)지역에서 일본 군위안부 생활.

1944년 중국군의 반격으로 라모수비대 전멸. 전멸 직전 만삭의 몸으로 일본군의 진지탈출. 이후 중국군에 의해 곤명(쿤밍)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

1946년 2월, 고향 남포에 도착(중국 곤명, 중경, 상해, 인천,서울, 황해도 청단을 거쳐)

1993년 일본군위안부임을 밝힘

2003년 일본인 연구자들과 함께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중국 남경과 중국 운남성 송산 답사

